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 1-6) 정주환 목사
- 결단찬양 "무명이어도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서 1:27-30)

오늘 본문 27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째, 복음을 위해서 하나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27 절에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삶입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은 내가 아닌 우리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희생을 감당하는 함께 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함, 하나 됨을 위해서 내 고집, 내 성향,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둘째, 복음을 담대한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방해와 핍박, 붙잡힘과 매 맞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 사명 앞에 뒤로 물러서면서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 사래 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 상황과 형편으로 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은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29 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은 우리는 죄 용서함, 하나님의 자녀, 영생, 천국 등 수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이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특권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특권은 결국 영원한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이며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 2. 생명의 삶** - 요셉반 생명의 삶 성경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 3. 주일 설교자** - 오늘 예배 설교는 소망나눔 공동체 (IHOP) 를 섬기시는 정주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 4. 운영위원모임** - 오늘 오후 1 시에 운영 위원회 모임으로 모입니다.
- 5. 비전 트립** - 한국 소망 공동체 사역으로 한국 시설 고등학생 3 명이 미주 비전트립을 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섬깁니다.
- 6. 월례회** - 2 월 23 일 주일예배 후에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 7. 교회 주소록** - 2025 년 업데이트된 주소록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확인 하신후 틀린 내용이 있으면 옆에 붙여있는 지면에 바로 잡아 주십시오.

행사 및 모임

2 월	성찬식	2 월 2 일 (주일)
2 월	비전트립	2 월 19-20
2 월	각기관 월례회	2 월 23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2/16	2/23	3/02	3/09
대표기도	유영민	손정임	차은희	심영민
헌화성도	유영민	정명희	최수덕	이강선
봉사당번	사랑구역	각기관 월례회	믿음구역	믿음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안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신앙생활이란

텍사스에서 처음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을 때 신기했던 것은 겨울에 오는 비였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와야 하는데 12월부터 1월 2월에 비가 온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온 후부터 온 산이 푸르게 변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겨울에 내리는 비나 겨울에 푸르게 돌아나는 풀을 본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가주에 와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경험하고, 그 겨울비로 인해 온 산이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알았던 상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텍사스에 사는 친구들은 북가주에서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날씨와 겨울비로 인해 파릇파릇 솟아나는 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북가주에서 사는 분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러한 것을 겨울에 내리는 비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상식과,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뎌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삶이 가장 귀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닌 주어진 일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생활이란 말을 풀어서 본다면 믿음의 생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과 일치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생각과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천국과 이 세상에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하늘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라도 그 순종과, 그 섬김과,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푸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